

<p>일, 테크놀로지, 성, 소비, 진리, 행복에 대한 새로운 생각</p>		
	<h1>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h1>	
		
		<p>크리스 파커 지음 홍병룡 옮김 강영안 감수</p>
	<p>템북</p>	

스터디 가이드북

크리스 파커 지음 | 백승국 옮김

일, 레크놀로지,
성, 소비, 진리,
행복에 대한
새로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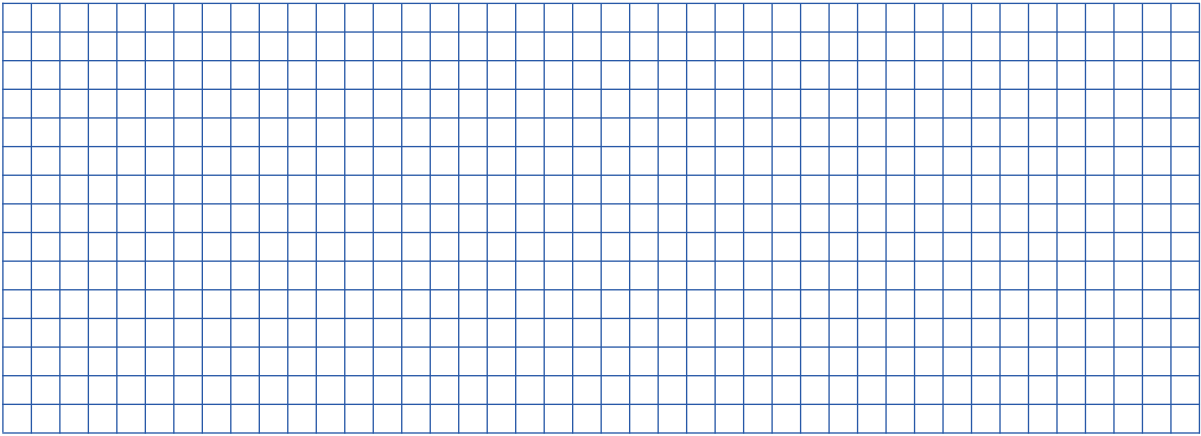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가이드북

크리스 파커 지음
백승국 옮김

※ 본 교재의 무료 PDF 파일은 템북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www.tembook.kr

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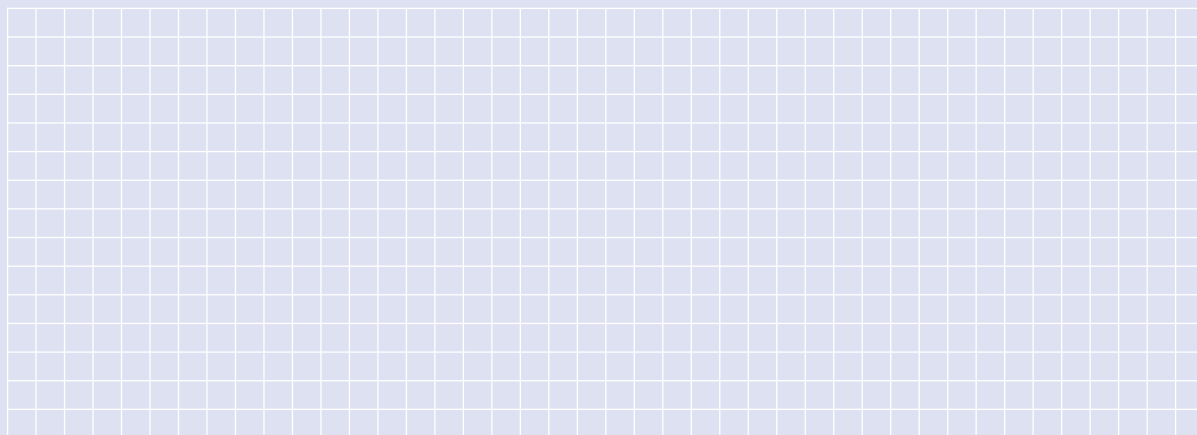
들어가며



이 책은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의 “PART 3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서 다루는 주제인 일과 테크놀로지, 성, 소비, 진리, 행복을 심도 있게 살펴 보면서 세계관을 확립하고자 돕는 스터디 가이드북입니다. 소그룹 또는 그보다 규모가 큰 단체에서 함께 읽은 책의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 유용합니다. 각 장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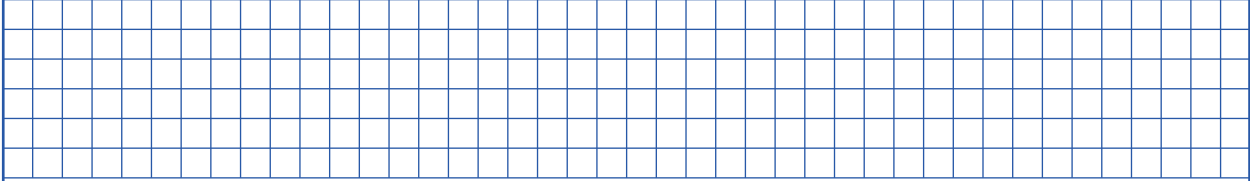
- 토의 주제
- 성경 구절
- 영상 자료
- 본문 다시 읽기
- 심화 질문

교사와 소그룹 리더 또는 학부모는 이 가이드북을 통해 학습자들이 하나의 주제 아래 여러 의견을 함께 나누며 문제를 고찰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이 가이드북의 목표는 토의 주제와 성경 구절, 영상, 심화 질문 등을 통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체계화하고 바른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들어가며 4
6장 일 7
7장 테크놀로지 11
8장 성 15
9장 소비 19
10장 진리 23
11장 행복 27

MEMO



6장 일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일’에 관해 토의합니다.

-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할까요?
- 일은 단순히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는 것’ 이상의 활동인가요?
-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 일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 무슨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가치 있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중요한가요?
- 선택하지 말아야 할 일의 형태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여러분이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최악의 직업을 나누어 봅시다.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일’이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일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_전도서 2:17, 18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_고린도전서 7:17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_고린도전서 10:31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_골로새서 3:23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 영상자료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Do you live to work, or work to live?
당신은 일하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일합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UcNOtBg8d84>



You hate going to work

당신은 출근하기 싫다

https://www.youtube.com/watch?v=1FZQ4_9-iLM



First day on the job

출근 첫날

<https://www.youtube.com/watch?v=noq6FXkyVy8>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일에 보상과 보람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더 큰 일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 전역의 많은 아동이 비인격적이고 하찮은 노동에 종사합니다. 점차 커지는 소비주의적 세계관은 인신매매를 성행하게 하고 여성의 성노예 문화를 퍼뜨립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 임금을 받으려고 작업대 앞에서 로봇처럼 일합니다. 일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할 뿐입니다. 이런 예들이 다소 극단적으로 들린다면 주변을 보세요. 우리는 평범한 과업과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무익하다는 느낌과 욕구불만에 시달립니다. 학교 수업이나 아르바이트, 취미 활동 등에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만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좋은 것으로만 설계하셨다면, 왜 그토록 많은 몸부림과 죄책감, 두려움, 욕구 불만, 무거운 고역이 수반되는 걸까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완전한 동산에서 왜곡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설계상 여전히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 가득한 부패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85~86쪽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 세계에 들어오신 역사의 중심점은 창조 세계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오염되

었으나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도 포함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와 창조주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일을 포함한 문화적 활동도 회복의 렌즈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왜곡되고 손상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회복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 즉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잠재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느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참으로 폭넓습니다. 이 관점은 희망이 가득하고, 목적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서 타락에 따른 일의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렌즈로 '일'을 바라보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 여러분의 관점에 영향을 주고 있나요?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88-89쪽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1. 일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믿나요?

모든 형태의 일을 좋게 보는 것이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이 어쩔 수 없이 해치워야 하는 것이 아닌, 인격적인 충족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일은 본래 선하게 설계되었습니다.

2.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사람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일을 삶의 최고 자리에 올려놓으면, 일에서 본래 이루도록 설계된 성취감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우상화하면 일에 중독되고, 결국 일은 고역이 됩니다.

3. 여러분은 모든 일이 동등하다고 믿나요?

우리는 흔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결코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일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기여도에 따라 일의 가치를 계층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있나요?

일은 좋은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현대인들은 일 때문에 왜곡과 좌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들어온 균열은 일을 포함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갈등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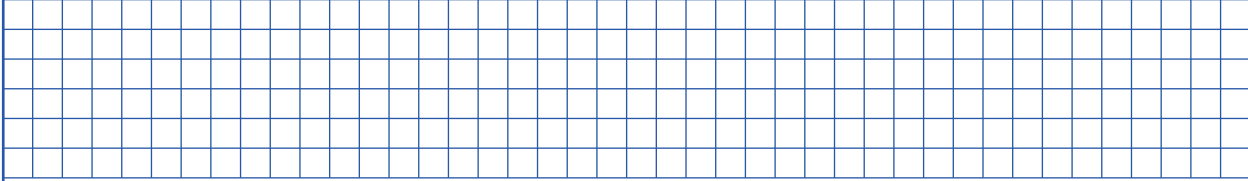
5. 일의 의미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서 창조 세계에 들어오신 것은 일을 포함해 모든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일에 동역하도록 초대하십니다.

6. 여러분은 일이 회복되리라 믿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회복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우리의 일은 섬김과 자기희생이 되고, 자신보다 큰 비전에 대한 헌신이 됩니다. 그리하여 일에 희망과 의미와 목적이 가득해집니다.

MEMO



7장 테크놀로지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테크놀로지'에 관해 토의합시다.

- 여러분은 디지털 문화에 얼마나 몰입하며 그 영향을 받고 있나요? (1~10점으로 표현해 보세요.)
- 사람들과 늘 연결되어 있고 최신 기술을 따라잡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FOMO*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나요?
- 디지털 기술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나요?
- 온라인 친구가 많으면 실생활에서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줄어들까요?
- SNS에 연결되지 않아서 불안한 적이 있나요?
- 디지털 문화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데 항상 도움이 되나요? 때로는 그 문화가 방해가 될 때도 있나요?

+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시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

* FOMO(Fear of missing out) 자신이 뒤처져 있다거나 제외(소외)되는 듯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 (책 99쪽 참고)

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창세기 11:1~9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_골로새서 3:17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 영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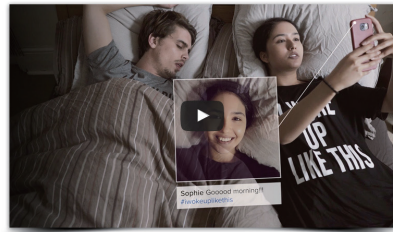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Are you last in the world like me?

여러분도 나처럼 세상에서 길을 잃었나요?

<https://www.youtube.com/watch?v=l3wjcwTcTt4>



Are you living an Insta lie?

여러분은 인스타그램에서 거짓으로 살고 있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0EFHbruKEmw>



Can we auto-correct humanity?

우리는 인간성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dRl8ElhrQjQ>



You wouldn't say it in person

여러분은 직접 그 말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TJ9P_nDbTo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셜 네트워크 테크놀로지는 나르시시즘을 끊임없이 순환시킵니다. 자기를 홍보하는 행위는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 친구 관계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자기 홍보를 하면 또 다른 자기 홍보자들에게 연결되고, 이런 순환이 계속 확장되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이 나르시시즘적 순환을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순환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게시물에 '좋아요'가 많이 달렸다고 해서 자신이 더 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의 차원은 어떤가요? 자신이 올린 글에 반응하는 사람들 때문에 흥분하거나 실망한 적은 없나요?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자기중심적 행위를 더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허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_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04~105쪽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우상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발견하고 이해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이 살고 싶은 완벽한 세계를 창조할 능력이 있습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여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해 줄 수 있는 이상으로 숭배됩니다. 이 관점은 실로 미묘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이 문화적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 "나는 안정과 목적, 희망을 찾기 위해 테크놀로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_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10~111쪽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1.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수록 잘 모르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정보 획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과 효과가 정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앎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깊이와 지혜를 버리고 얕은 지식을 얻는 데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여러분의 진짜 연약한 모습을 포스팅한 때는 언제인가요?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행복과 긍정적 측면만 보여 주고 일상적인 '현실'과 삶에 대한 치열함을 과소평가하도록 부추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다른 이들과 너무 '쿨해' 보이지 않고, 완벽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3. 온라인에서 자기 과시의 유혹을 느낀 적이 있나요?

디지털 기술은 자기애적 행동과 사고방식을 부추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기애와 나를 보라는 식의 태도가 정상적이거나 당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잠재적으로 인간의 성품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4. 꼭 전화로 이야기해야 할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나요?

디지털 기술이 우리와 실생활 사이의 매개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이 의존할수록 우리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인간관계에 게을러져 풍성한 관계를 놓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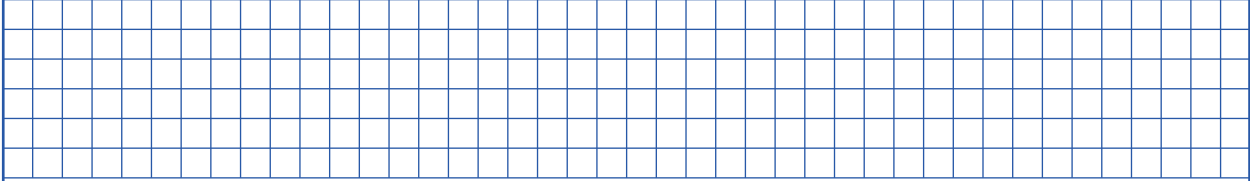
5. 테크놀로지를 '도구'로만 보는 경향이 있나요?

우리가 "이건 도구일 뿐이고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삶과 다른 사람, 우리 자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테크놀로지가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게 됩니다.

6.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나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문화적 스토리텔링은 기술이 안전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테크놀로지는 기껏해야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 뿐이고,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설계한 '정상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실상은 안전과 희망을 제공할 수도,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MEMO



8장 성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성'에 관해 토의합니다.

- 성관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성관계를 가장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성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성적인 것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이라는 좋은 선물을 오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성'이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성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려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_잠언 5:15-2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_마태복음 19:4-6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

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_고린도전서 7:2-5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_데살로니가전서 4:3-8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 영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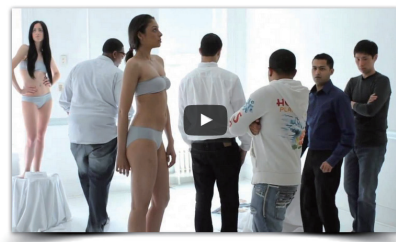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Body Love

육체적 사랑

<https://www.youtube.com/watch?v=j3f1zii5skA>



Objectification of women

여성의 성상품화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397&v=u_4dPB9MVS8&feature=emb_logo



Stories of teenage plastic surgery

십대 성형 수술의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Y9f3Ri36gzU>



Porn and technology

포르노와 테크놀로지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61&v=y-bxu0NqZqM&feature=emb_logo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성에 관한 한 무엇이 옳은지(도덕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서양의 경우 예전에는 섹스와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체로 개인의 느낌에 따라 성에 대한 옳고 그름이 좌우됩니다. 만일 그것이 좋으면(그리고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며, 그렇게 할 때 인간으로서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시하고 '기독교적' 도덕관을 의심하게 되면서 성관계는 결혼과 가족, 출산에서 분리되어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 성취에 연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성적 표현을 탐구할 자유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성과 심지어 성관계를 많이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성취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것을 넘어 궁극적인 개인의 권리로까지 간주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21~122쪽

우리는 자신의 신체, 즉 몸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요? 만일 성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계에 살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기준이 성(性)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강박관념을 갖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섹시'하지 않다면 성과 섹시함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는 사회에서 성취감을 못 느끼고, 덜 소중하게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이나 압력을 느낀 적이 있나요?

지금 당장 인스타그램 검색창에 "#셀피"를 입력해 보세요. 10분 동안 올라온 게시물 중 노출이 심한 자기 모습을 찍어 올린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울러 이런저런 형태의 문신, 피어싱, 체형 관리에 관심이 커지는 현상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그러나 문신과 배꼽 피어싱을 한 사람이 내게 이메일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요지는 이런 것들은 성적 가치관에서 흘러나온, 우리 몸에 초점을 두는 현상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렌즈로 자신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퍼부어지는 '섹시함'의 이상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23~124쪽

?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1. 여러분은 삶에서 성과 '섹시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요?

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좋은 것 중 하나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일부이지만 우리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성은 우리의 일차적 정체성과 거리가 있습니다.

2. 여러분은 금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정 기간이나 평생에 걸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금욕은 여러분이 속한 문화가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풍성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성관계는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3. 성관계를 나누기 전에 고려해야 할 것은 상호합의만일까요?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 문화는 상호 합의가 성관계의 유일한 경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성을 설계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관계 안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4. 성관계는 인간의 욕망을 얼마나 만족시키나요?

성관계는 친밀하고 깊은 관계의 성격을 지닙니다. 성관계는 생물학적이거나 심리적 욕구의 해소보다 자기희생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5. 성관계와 가족의 의미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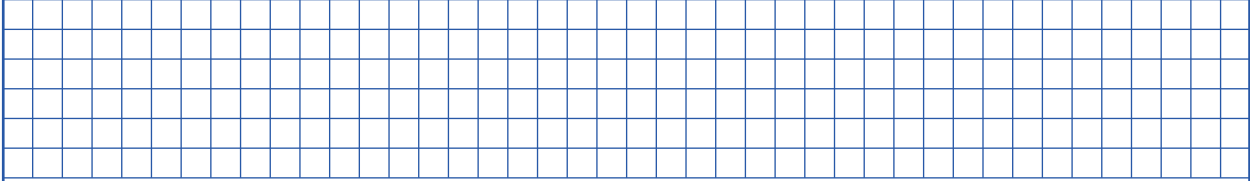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관계에는 언제나 한 가족과 부모를 탄생시킬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관계가 필요하다면 이 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 즉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6. 음란물은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방향을 바꾸며, 손상을 입히나요?

음란물은 충격적일 정도로 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르노 시청자나 포르노 '배우'의 품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중독성이 강한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관계에 손상을 입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풍부한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7. 이미 성을 남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기 몸으로 무슨 행위를 했든지, 우리의 성을 어떻게 표현했든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품었든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변화의 은혜와 자비는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주어집니다.



9장 소비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소비’에 관해 토의합니다.

- 여러분은 소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 항상 유행에 뒤처진 옷을 입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 새로운 물건을 살펴보고 구입하면 행복해지나요?
- 물품의 소비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일부가 된다면, 다른 사람도 ‘소비’하게 되지 않을까요?
- 소비는 언제나 잘못된 일일까요?
- 내 생활 방식은 가벼운 걸음으로 지구를 다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큰 발자국을 남기는 것일까요?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소비’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소비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_마가복음 8:36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_누가복음 12:15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_디모데전서 6:17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_히브리서 13:5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

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_디모데전서 6:6-10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 영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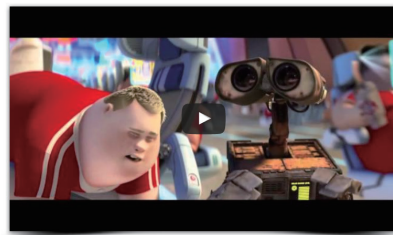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Consumerism trap: Y Fone 5

소비주의의 함정: Y Fon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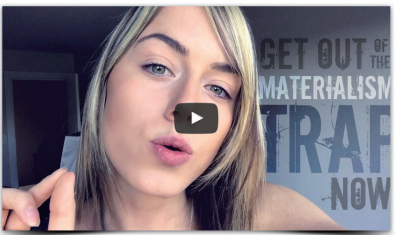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uNbgQxmcYQY>



Human dystopia: Wall-E

인류 디스토피아: 월-E

<https://www.youtube.com/watch?v=h1BQPv-iCkU>



Get out of the materialism trap NOW

지금, 소비의 함정에서 벗어나라

<https://www.youtube.com/watch?v=Qk1i7UGBz1Q>



Big

크게

https://www.youtube.com/watch?v=_39b8e5PXWw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소비를 강조하는 문화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한 국가의 성공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제학자와 정치가, 자본가는 보통 한 국가의 성공을 국민이 만들고 팔고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으로 측정합니다. 한 국가의 건강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과 정신적 행복, 정의, 안정된 가정, 창의성 또는 지속 가능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량을 통해 평가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재화를 생산하는 이들은 소비의 문화적 흐름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수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결과 소비를 부추기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로 구성된 소비 산업은 큰 효과를 얻습니다. 그렇다 보

니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정성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세대 전만 해도 검소함과 절제가 미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기 엔진의 발명과 더불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이제 값싼 물품을 단시간 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을 구입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제조 공장에서 일하게 되자 스토리텔러 산업(광고업자들과 마케터들)은 우리에게 물품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36-137쪽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자로 규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삶의 다른 측면에서도 더 많은 것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에서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현상이(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소비주의적 사고방식과 결합되면 소셜 미디어는 인간관계를 소비하게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소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를 선택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재화'를 버립니다.

소비가 우리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우리는(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품을 소비하듯 사람을 소비합니다.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것은 창조주가 설계하신 인간 반영의 모습과 완전히 상충됩니다. 사람들은 상품으로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진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들이기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보다 덜한 존재로 취급하거나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경적 인간관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41~142쪽

?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강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1. 소비는 과연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창조 세계를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풍성함을 소비하고 경험하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2. 소비는 언제, 어떻게 소비주의가 될까요?

겸손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좋은 피조물을 소비하던 것이 안전과 행복,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한 소비로 그 목적이 바뀔 때, 소비는 소비주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문화에서 말하는 '소비주의'를 식별할 수 있나요?

끝없는 소비와 이런 행위를 숭배하는 것은 강력한 서구 문화의 주류입니다. 이는 삶의 다른 측면까지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4. 때때로 소비해야만 한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소비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상업 광고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정체성이 소비로 정해진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이 삶과 이 세상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5. 소비주의가 사람을 소비하는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나요?

사람은 절대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주의는 교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물품으로 취급하게 만듭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설계하신 것과 거리가 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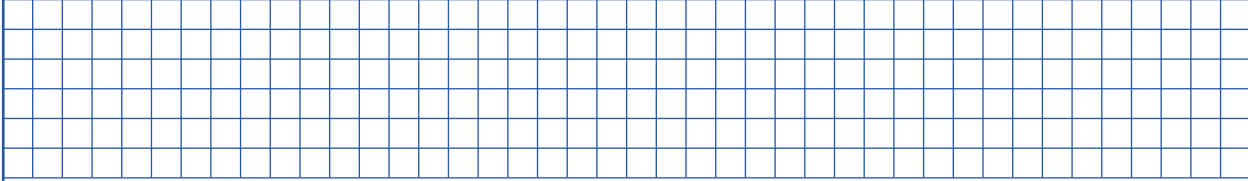
6. 소비주의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소비주의는 우리에게 계약적 사고방식을 주입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거나 너에게 주면, 너는 나에게 저것을 주거나 행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나 공동체에 헌신하면 자신과 타인을 위한 삶은 더 풍성해집니다. 계약보다 헌신에 기초한 인생관을 추구하십시오.

7. 무제한적인 소비주의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빠르기만큼 세계의 자원이 고갈되고 오염을 지정하는 능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지명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사람들과 현재와 미래 세대에 큰 불의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MEMO



10장 진리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진리'에 관해 토의합니다.

- 우리가 '진리 이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무언가가 진실임을 아는 데 필요한 궁극적인 권위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 진리를 개발하는 데 과학이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나요?
- 단순히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강하게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는 언제인가요?
- 어떤 것에 대한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 만일 무언가가 나에게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이어야 할까요?
- 관용 자체가 관용적이지 못할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진리'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진리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_골로새서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_요한복음 14:6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_고린도전서 13:8-12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_요한복음 18:38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_출애굽기 34:17

▶ 영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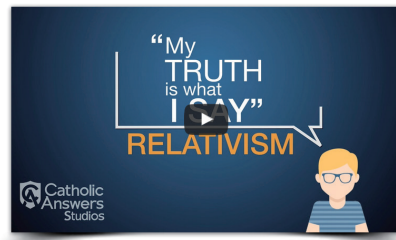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 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Can you be good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선할 수 있습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OxiAikEk2vU>



Is it true that there is no truth?

진실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Rgd5fe3jPQA>



Absolute truth

완전한 진리

<https://www.youtube.com/watch?v=VaGNRP6Q-6Q>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2006년 미국의 사전 출판사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가 선정한 ‘올해의 신조어’는 ‘truthiness’(트루시니스)입니다. 이 단어

는 본래 2005년에 미국의 유명한 방송 진행자 스티븐 콜버트가 이라크에 살상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사실로 믿고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조지 W. 부시 정권을 풍자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truthiness: 논리나 사실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내면적으로 자신이 믿고 싶은 바를 진실로 인식하려는 성향 또는 심리 상태

이 단어에는 진실을 규정짓는 권위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콜버트는 우리가 무엇이 참되고 옳은지를 규정할 때 개인적 의견과 느낌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느끼는 바가 진실이 되거나 '진실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한 가지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적 진리(참된 진리)의 개념이 갈수록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정치인들은 진실이나 사실적 근거 없이 논리를 폈습니다. 문화 비평가들이 '진리 이후' 시대의 탄생을 목격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54~155쪽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진리를 말해 줄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출처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진리를 포함해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이 관점은 몇몇 사회적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절대 진리라 분명히 존재한다는 관점을 과학적 관점과 일치합니다. ... 성경적 관점은 과학이 세계의 복잡다단한 면을 상세히 이해하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과학과 과학자들 모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학에 대해 분별력을 갖추길 촉구합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62~163쪽

?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1.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고 믿나요?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르면 절대 진리는 분명 존재합니다. (상황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진리에 대한 권위 있는 주요 출처는 무엇인가요?

진리를 선언하는 출처는 과학 이론과 집단 여론, 개인적 인식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과학은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인간이 질문을 던지고, 측량하고, 결론을 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리를 주장하기에는 과학의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4. 다른 사람들의 견해는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경험이 많은 사람의 견해와 지식을 살펴보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죄의 영향을 받아서 궁극적인 진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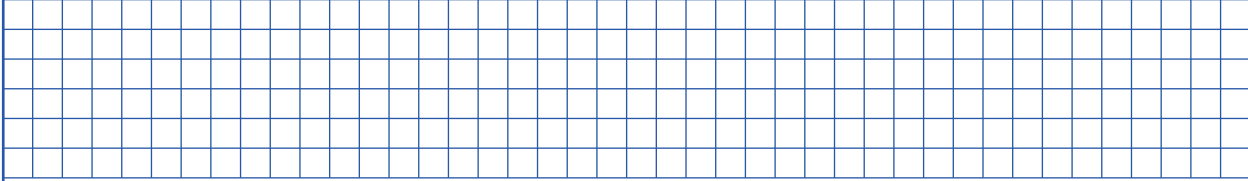
5. 감정과 욕망은 여러분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을 진리를 정의하는 권위 있는 출처로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6. 많은 사람이 동의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까요?

여러 집단의 합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비슷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어리석음에 합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EMO



11장 행복

토의 주제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주제를 선택하여 ‘행복’에 관해 토의합니다.

-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나요?
-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 행복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 행복은 감정 이상의 것일까요?
- 목적과 희망은 행복 방정식에서 어디에 들어맞을까요?
- 궁극적인 행복은 존재할까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다음 성경 말씀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구절이 ‘행복’이라는 주제를 두고 어떠한 견해를 보이는지 토의하고 적용합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입니까?”, “성경 저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행복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와 같은 방향을 가진 질문을 나누면 좋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 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누가복음 12:22-34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1:4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17

▶ 영상자료

다음 영상 중 한 편 이상을 시청하고 나눔을 이어 가거나 영상 속에 숨은 뜻을 찾아 의견을 나누는 데 초점을 두고 토의에 활용합니다. “그 영상 자료를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이 영상을 어린아이들에게 보여 주어도 유익할까요? 그렇다면,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에서 우리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My dad is a liar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https://www.youtube.com/watch?v=4K2_oQebZX0&feature=emb_logo



Wat is happiness? INFOGRAPHIC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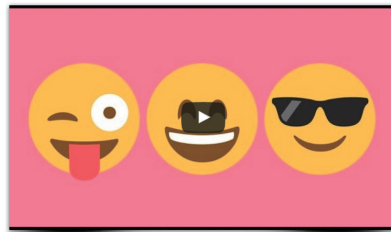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IIWQeMFncm8>



What makes you happy? | 1-100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 1-100

<https://www.youtube.com/watch?v=sJ8xZtxXLc8>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FDf2DidUAYY>

- 모든 영상은 <https://www.thefrogandthefish.com/videos> 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시 읽기

토의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책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다음의 글 중 한 편 혹은 모두를 읽으면 나눔에 유익할 것입니다.

행복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은 것은(또는 자녀를 행복하게 하려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이 그렇듯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행복을 추구하다가 지금에 이른 것은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행복 과대광고'에 빠져 그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의 스토리텔링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나요? 잠에서 깬 때마다 오늘은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는 그걸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78쪽

어떤 사람들의 현실은 행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불행하다는 느낌에 휩싸여 온종일, 어쩌면 몇 주,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지냅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기적인 정신 문제는 종종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이나 비극,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첫째, 괜찮습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 매우 흔한 일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둘째,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경험상)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178-179쪽

? 심화 질문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나누는 논의와 성찰은 이번 장의 주제를 향한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인식을 개선하려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1. 행복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좋은 세상에는 심오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그 기쁨을 즐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2. 불행은 항상 나쁜 것인가요?

우리는 행복에 들떠 있지 않을 때가 많고 이는 지극히 평범한 현상입니다. 가끔 이런 느낌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3. 행복 과대광고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리 문화는 우리가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고, 행복은 우리의 권리라고 속삭입니다. 만일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할 자격을 누리기 위해 쇼핑이나 성관계, 자기 과시나 약물 복용 등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행복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4. 행복을 잡으려다 불행해진 적이 있나요?

과대 포장된 행복만 믿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항상 행복해지는 것'으로 삼으면, 사실상 우리는 덜 행복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5. 행복에서 만족의 위치를 찾아보았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환경에 만족하면 좀 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 희망이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행복은 희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둘 때 생기는 행복은 알팍하고 일시적이어서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궁극적이고 진정한 행복은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노력을 그만두고 안식을 찾을 때 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불안을 경험하셨음을 인정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지은이 크리스 파커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기술을 가르쳤다. 이후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젊은 세대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삶의 모든 측면을 바라보도록 돕는 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호주 전역의 미션스쿨에서 기독교 세계관 강연을 펼쳐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책은 우리를 둘러싼 문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초점을 맞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는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의 스터디 가이드북으로, 독자가 책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자기 삶과 연결하여, 각자의 삶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해 나가도록 돕는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은 2018년 호주 ‘올해의 기독교 책’에 선정된 이후 기독교 세계관 필독서로 자리매김했다.

옮긴이 백승국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16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교에서 수학하는 예비 교사들의 견고한 성장이 교육 현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믿으며 (사)교사선교회의 예비교사국장으로 수년간 사역하며 돕고 있다. 그림책 『세상에 필요한 건 너의 모습 그대로』, 『교사, 함께할수록 빛나는』, 『사소한 아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 등 다수의 책을 감수하고 편집에 참여하였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가이드북

초판 1쇄 인쇄 2022년 10월 6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10월 16일

지은이 크리스 파커

옮긴이 백승국

발행인 김선희

디자인 정선형

제작 김혜정 이광우

총무 이성경

인쇄 (주)한국학술정보

발행처 템북

주소 인천 중구 신도시남로142번길 6, 402호

전화 032-752-7844

팩스 032-752-7840

이메일 tembook@naver.com

홈페이지 tembook.kr

출판등록 2018년 3월 9일 제2018-000006호

ISBN 979-11-89782-65-8 (03230)

The Frog and The Fish: Reflections on Work, Technology, Sex, Stuff, Truth, and Happiness STUDY GUIDE BOOK

© 2017 by Chris Parker All rights reserved.

Used and translated by the permission of Chris Parker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

This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22 by TEMBOOK, Inc., Republic of Korea.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이 책의 저자 Chris Parker와 독점 계약한 템북에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템북은 아이들이 꿈꾸게 하고, 교사들이 소명을 깨닫게 하며,
교육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책을 만듭니다.



처음 만나는 기독교 세계관

스터디 가이드북



비매품

ISBN 979-11-89782-65-8